

'문학의 해'가 '출판의 해' 아닌가

이중환

서울신문사 논설위원·출판평론가

굳이 따질것도 없이 문학과 출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일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출발 이후 출판을 없었던다면 문학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 나름대로 성장은 했을 것이지만, 아마도 필사본이나 구비문학으로 느리고 불확실하게 전파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도 문학의 위상은 오늘과 같았을까.

출판의 성장 역시 문학이 없었다면 다소간 다른 얼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학을 제외한 베스트셀러—그것은 오늘에도 그저 말이 베스트셀러이지 출판을 즐겁게 먹여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출판에 있어 픽션 베스트셀러는 석유와 같고, 년픽션 베스트셀러는 비타민 정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평범한 비유를 왜 새삼 하는가. 올해가 '문학의 해'이기 때문이다. '문학의 해'는 우연한 일이지만 곧잘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와 그 네트워크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런저런 변화 중에 가장 심각해 보이는 한 측면은 '읽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결과로 공중적 문학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문학의 해'가 해야 할 일에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문학은 당연히 문학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공중적인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읽기를 촉발하는 도

구로서 문학이 얼마나 훌륭한 매체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에는 더 합리적이며 실질적 과제가 아닐까 한다(문학예술의 위신에 적절한 주문이 아니라면 할 말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은 출판이 나섰으면 어떻게 생각해보나. 기회만 있으면 팔아야 하는 것이 모든 생산품의 경영원리라면, '문학의 해'같이 대단한 이벤트에 출판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문학의 해'는 벌써 4분의 1이 지났는데도 문학과 조용하고 더더욱 출판은 너무 무관한 상태로 있다. 나는 너무 씁쓸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어 문학은 문학이라는 고고한 예술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D.H. 로렌스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 시체가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소설을 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좀 철학적 견해를 찾자면 앙드레 말로의 표현도 있다. 그의 소설 <희망>에서 한 등장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인생에 있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 될 수 있는 한 넓은 체험을 의식 속에 옮겨 넣는 것이다."—이것이 말로가 소설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여기서 일상적 삶에 있어 문학과 읽기의 효용을 전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사회에 살고 있으면 너무 극심하게 단조롭고 평면적이며, 피상

적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획일화되고 있다는 절망감 같은 것을 되짚게 되고, 그래서 이 절망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말이 되는 문학을 다소나마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긴박감까지도 느끼고 있음을 말해야 할 것 같다.

책이 다른 상품과 다른 것은 그것이 물체이면서도 정신을 담고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책 팔기는 그저 물건 팔기와는 좀 달라야 한다.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상징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 점에서 나는 그저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독서운동에 대해서도 답답해 한다. 어떤 책을 왜 지금 읽어야 하는가만이라도 설명하는 성의가 있어야 독서운동의 의미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읽을 만한 문학은 이 시대 한국사회에 정말 강조해서 읽혀져야 한다. 문학은 문학이 왜 삶에 있어 중요한 필수품인가를 설명하고 출판은 이를 새롭게 보급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면, '문학의 해'는 당연히 '출판의 해'로 쓰여야 한다.

문학이나 출판이나 모두 그동안 획득했던 가치와 효용이 어떤 노력도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머지않은 시간내에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였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90호/1996년 4월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매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살아 움직이는 손길 곧, 책장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근간)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